

## 연변 조선족 아동과 한국 아동의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성비교: 삽화를 중심으로\*

박혜원 · 안정선 · 이귀옥  
울산대학교 아동 · 가정복지전공 · 경성대학교

### <요 약>

조선족 아동의 도덕 교과서에 제시된 성비와 성역할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의 도덕 교과서 6권(초등학교 1-1, 1-2, 4-1, 4-2, 중학교 1학년, 2학년)과 조선족의 사상품성 교과서 6권(사상품성 1, 2, 7, 8권, 사상정치 1학년 상, 하)이었다. 삽화 속의 남녀 비율과 의복형태, 색채 및 직업을 분석하였다. 삽화분석결과 두 국가의 교과서에서 유사하게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삽화 속 남녀의 의복형태에서는 여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비율이 한국 교과서에서 연변 교과서에 비해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의복색채의 분석에서는 연변 교과서가 한국 교과서에 비해서 성에 따른 색채의 편중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성에 따른 직업분석에서도 남녀역할의 고정관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으며, 한국의 교과서보다 연변 교과서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선족의 교과서에는 중국이라는 거시체계에 있으므로 해서 성역할과 성비는 한국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가 이렇게 명시적/암묵적으로 성고정관념적 성역할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조선족 아동, 한국 아동, 도덕교과서, 성역할

## Sex roles and gender differences in ethics textbooks: Comparison among Yanbian Korean-Chinese and Korean textbooks

\* 교신저자 : 박혜원(hyewonc@mail.ulsan.ac.kr). 이 논문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HM2001).

Hyewon Park Choi · Jungsun Ahn · Kwee-ock Lee  
 Univerisity of Ulsan · Kyung Sung University

### <Abstract>

Sex roles and gender differences in ethics textbooks of Yanbian Korean-Chinese and Korean children were compared. Drawings of ethics textbooks of G1, G4, G7 & G8 Yanbian Korean-Chinese and Korean-children'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each gender character, stereotypical clothes types(skirts or trousers), clothes color and vocational types. Drawings were found to be strongly biased favoring male characters. Education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Sex roles, gender differences, ethics textbooks, Yanbian Korean-Chinese, Korean

## I. 서론

중국의 조선족은 조국인 남한 또는 북한과는 다른 중국이라는 거시체계 내에 있으면서도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보호정책 하에 한국인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존하면서 한민족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한국과의 교류,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 중국의 개방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이러한 언어, 문화적 특수성 유지에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박광식, 1990a, b; 박혜원 · 이귀옥 · 원영미, 2003; 유병호, 2000; 이수행, 1999). 그런데 연변 조선족은 북한과 인접하여 북한으로부터 이주한 한민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들의 가치관과 문화에 대한 이해는 민족의 영원인 통일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박성희, 1994). 또한 이런 정치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치관과 정체감의 특성은 학문적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연구과제이다(민수봉, 1994; 이홍남, 2002; 임춘매, 1992; 정확실, 조연순, 이성은, 1992; 한용수, 1999; 한옥주, 2001). 비록 동양권에 속한 국가들이지만 중국과 한국은 정치체계와 가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거시체계 내에서 한국어와 한민족문화를 누리하고 있는 조선족의 가치관의 분석은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조선족 사회의 가치관과 관련된 여러 문제 중 하나인 성(gender)에 따른 역할과 성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도덕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우정옥, 2000; 이우용, 2001; 이정희, 1997). 근대화 이후 중국에서는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인구정책을 전개하고 있어 1954년 이후 3차에 걸쳐 늦게 결혼하기, 터울을 많이 두어 적게 낳기 등의 가족계획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1979년부터는 한 자녀갓기 운동을 전개하여 2자녀이상의 출산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여 왔다(독고순, 1983). 최근 이러한 법적 제재는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중국인 대다수는 1자녀를 두고 있는

현실이다. 연변 조선족은 소수민족으로서 비록 위 정책에서 예외적일 수 있었으나, 중국의 정책에 따라 1자녀 가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귀옥 등, 2003). 이러한 1자녀출산의 정책은 인구수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아동의 성비와 성역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조선족 사회에서는 최근까지도 2자녀 정책이 꾸준히 펼쳐져 온 한국과는 성에 대한 인식과 성역할과 성차가 많이 다를 수 있다.

국내에서 성역할 교육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정희(1997)는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을 분석한 결과 등장인물의 성별 출현 빈도, 직업과 역할, 출현장소, 인물의 성격, 학습장면, 놀이의 종류, 공격적 행동, 교과서 편찬위원의 수 등 양적 부분에서도 남녀 불평등적인 요소가 많았고 사례 분석에서도 남녀역할의 성역할고정관념에서 오는 불평등적인 사례가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는 교과서에 나타난 등장인물이 성역할 사회화의 모델이 된다고 볼 때, 교과서를 통한 등장인물의 출현빈도와 성별 사례내용은 평등하게 제시되어야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역할 사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김옥순(2001)은 남녀 학생들이 올바른 성역할관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초등학교 현장에서 성차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는 교육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교육으로서의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하며, 차별적이고 이중적인 성역할 문화를 극복하는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양성평등교육에 임하는 교사의 확고한 가치관이 필요하므로, 교사 준비교육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교사사회가 남성중심의 문화권에서 벗어나 남녀 교사가 행정직이나 업무분담에 있어서 능력에 따라 직위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의식 및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일관성 없는 성역할관 교육으로 인해 갈등을 갖지 않도록 부모들의 양성평등관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소성희(1998)도 교과서는 가능한 성고정관념이 배제된 것이어야 하므로 국내의 교과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보다 적극적인 여성상과 여성의 직업영역의 다양화, 등장인물의 빈도에 있어서도 남녀의 성차 파괴, 그리고 역사적 여성인물과 여성작가의 작품을 많이 발굴해서 소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근 김재경(2000)은 미술 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를 분석한 결과 남자를 표현한 횡수가 많이 나타났으며 여자가 중심에 있기보다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비율이 높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자를 표현한 색상은 녹색이나 한색계열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고, 여자를 표현한 색상은 난색계열인 빨강, 주황, 노랑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여자에게 표현된 색상의 편중이 남자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한국 교과서에서는 뚜렷이 성역할고정관념과 성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불평등이 사회화의 모델이 되어 학습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우려의 대상이다. 이는 또한 출산시 성비는 60%에 가까운 현실과 함께 가까운 장래에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최근 여학생의 대학입학률이나 여성의 사회진출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지위가 낮고 남녀불평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과서

의 경우 비교적 변화 또는 개정과정이 오래 걸리므로 사회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이현, 서병숙,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도덕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또한 중국 조선족의 문제와 함께 고려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 연변 교과서와 한국 교과서의 삽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비율, 의복형태와 색채, 직업분포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II. 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자료는 한국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의 도덕 교과서 5권과 연변의 소학교 사상품성 교과서 4권, 중학교 사상정치 교과서 2권이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내용분석 대상자료

	초등학교 (소학교)	중학교 (초급중학교)
연변	사상품성 1학년(제1권, 2권), 4학년(7권, 8권)	사상정치 1학년(상), 1학년(하)
한국	도덕 1-1, 도덕1-2 도덕 4-1, 도덕4-2	도덕 1학년

### 2. 분석내용

한국과 연변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성역할 및 남녀를 다룬 정도는 그림으로 한정하였다. 교과서 내용 속에서 남녀역할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전형적 고정관념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분석하였다. 먼저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을 제외한 삽화를 중심으로 남자의 수와 여자의 수를 세어서 그 빈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그림 속 남녀의 고정관념적 표현을 알아보기 위해 의복형태를 분석하였다. 의복형태는 남자의 하의와 여자의 하의를 중심으로 그 빈도를 알아보았다.

의복의 색채는 난색과 한색으로 구분하여 많이 쓰인 색을 알아보았다. 색의 분류는 난색 계열, 녹색계열, 한색계열로 분류하였고, 난색계는 빨강, 주황, 노랑의 계열로, 녹색계열은 연두, 녹색으로 한색계열은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색의 계열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림에 나타난 여성과 남성의 직업과 하는 일을 분류하여 성에 따라 하는 일과 직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 III. 결과

#### 1. 남녀비율

표2에서 연변 교과서의 삽화 속에 등장한 남녀의 비율을 학년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년에 따라

표 2. 삽화에 나타난 학년별 성비(연변 교과서)

	소학교1학년	소학교 4학년	초급 중학교 1학년	전체	$\chi^2$ 검증
남	346(48.3)	143(61.4)	31(46.3)	520(51.1)	$\chi^2=12.98^{**}$ df=2
여	371(51.7)	90(38.6)	36(53.7)	497(48.9)	
전체	717(100.0)	233(100.0)	67(100.0)	1017(100.0)	

\*\*p < .01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2.98$ ,  $p<.01$ ). 소학교 1학년은 남자가 48.3%, 여자가 51.7%로 여자가 약간 높았고 소학교 4학년의 경우는 남자가 61.4%로 여자 38.6% 보다 높았다. 초급 중학교 1학년은 남자가

표 3. 삽화에 나타난 학년별 성비(한국 교과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전체	$\chi^2$ 검증
남	454(49.0)	449(57.8)	211(60.3)	1114(54.2)	$\chi^2=19.44^{***}$ df=2
여	473(51.0)	328(42.2)	139(39.7)	940(45.8)	
전체	927(100.0)	777(100.0)	350(100.0)	2054(100.0)	

\*\*\* p < .001

46.3%로 여자 53.7%보다 낮았다. 전체적으로는 남자가 51.1%로 여자 48.9%보다 조금 높았다. 다시 말해, 소학교 1학년과 초급 중학교 1학년에서는 여자의 비율이 높았고, 소학교 4학년만 남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표3에서 한국 교과서의 경우를 보면 학년에 따른 남녀 비율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chi^2=19.44$ ,  $p<.001$ ).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남자가 49.0%, 여자가 51.0%로 여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는, 남자가 57.8%, 여자가 42.2%로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은 남자가 60.3%, 여자가 39.7%로 남자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학교 2학년의 경우도 남자가 55.1%로 여자 44.9%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남자가 54.2%, 여자가 45.8%로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변 교과서와 한국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남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자의 비율은 연변 교과서에서는 51.1%, 한국 교과서에서는 54.2%로 한국 교과서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자의 경우는 연변 교과서가 48.9%, 한국 교과서가 45.8%로 연변 교과서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 2. 의복형태

교과서에 인물의 그림에서 각 성의 인물이 성고정관념적인 의복(바지 또는 치마)을 착용하고 있는지 평가하였고, 바지인지 치마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로 분석하였다.

연변 교과서에 나타난 의복형태를 학년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소학교 1학년에서 성별에 따라 의복형태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x^2=333.31$ ,  $p<.001$ ). 남자의 72.0%가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28.0%가 기타로 나타났다. 여자는 51.2%가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12.7%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나머지 36.1%가 기타로 나타났다.

표 4. 삽화에 나타난 성별 의복형태(국가간 비교)

	남		여	
	연변 교과서	한국 교과서	연변 교과서	한국 교과서
바지	371(71.3)	991(71.2)	68(13.7)	122(13.0)
치마	0(0.0)	0(0.0)	248(49.9)	577(61.4)
기타	149(28.7)	402(28.8)	181(36.4)	241(25.6)
전체	520(100.0)	1393(100.0)	497(100.0)	940(100.0)
$x^2$ 검증	$x^2=0.01$ df=2		$x^2=20.46^{***}$ df=2	

\*\*  $p<.01$

소학교 4학년의 경우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x^2=101.11$ ,  $p<.001$ ). 자세한 내용을 보면, 남자의 70.0%가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나머지 30.0%가 기타로 나타났다. 여자의 46.7%가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15.5%가 바지를 입고 있었다. 나머지 37.8%가 기타로 나타났다. 초급 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남자가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은 71.0%, 기타가 29.0%로 나타났고 여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경우는 44.4%로 나타났으며, 바지를 입고 있는 경우가 19.4%, 기타가 36.1%로 나타났다( $x^2=24.25$ ,  $p<.001$ ).

전체적으로 성별에 여자가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경우보다 기타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여자의 치마를 입는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남자의 경우 71.3%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나머지 28.7%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다. 여자의 경우 바지를 입은 경우는 13.7%였고, 치마를 입은 경우가 49.9%였으며, 기타가 36.4%였다( $x^2=459.95$ ,  $p<.001$ ).

한국 교과서의 의복형태 분석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의복형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x^2=773.23$ ,  $p<.001$ ). 그 내용을 보면 남자가 바지를 입고 있는 비율이 75.9%이고 여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비율이 69.6%이고 바지를 입고 있는 경우는 8.6%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x^2=294.41$ ,  $p<.001$ ), 남자가 바지를 입고 있는 경우는 69.7%이고, 여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경우가 46.9%이고 바지를 입고 있는 경우는 22.6%였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도 성별에 따른 의복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x^2=210.76$ ,  $p<.001$ ). 남자가 바지를 입고 있는 경우는 57.3%였고, 여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경우는 67.6%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의복형태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남자가 바지를 입고 있는 경우가 71.2%였고, 기타가 28.8%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바지를 입고 있는 경우가 13.0%, 치마를 입고

있는 경우가 61.4%로 나타났고, 기타가 25.6%로 나타났다( $x^2=1255.16$ ,  $p<.001$ ).

연변 교과서와 한국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여자의 경우 치마를 입고 있는 비율이 한국 교과서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변 교과서는 여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경우가 50%를 넘고 있지 않은데 반해, 한국 교과서는 여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비율이 거의 50.0%를 훨씬 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자가 바지를 입고 있는 비율은 한국 교과서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10%내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변 교과서의 경우는 10%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4에서 성별에 따라 연변 교과서와 한국 교과서의 의복형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남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바지를 입고 있는 경우가 연변 교과서에서는 71.3%, 한국 교과서에서는 71.2%로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다. 남녀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기타)를 보면, 연변 교과서는 28.7, 한국 교과서는 28.8%로 거의 같게 나타남으로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여자의 경우를 보면, 국가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x^2=20.46$ ,  $p<.001$ ). 자세한 내용을 보면, 여자가 바지를 입고 있는 경우는 연변 교과서에서는 13.7%, 한국 교과서에서는 13.0%로 연변 교과서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경우는 연변 교과서는 49.9%, 한국 교과서는 61.4%로 한국 교과서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인 기타를 보면, 연변 교과서에서는 36.4%, 한국 교과서에서는 25.6%로 연변 교과서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 3. 의복색채

연변 교과서의 경우 초급 중학교의 교과서는 흑백이므로 색채분석은 소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변 교과서에서 나타난 색상을 학년별로 성별에 따른 색상계열별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소학교 1학년에서는 성별에 따른 색상계열의 차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x^2=66.65$ ,  $p<.001$ ). 남자는 난색계열이 31.1%, 녹색계열이 7.9%, 한색계열이 61.0%로 한색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자는 난색계열이 60.8%, 녹색계열이 8.1%, 한색계열이 31.1%로 난색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학교 4학년에서도 성별에 따른 색상계열의 차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x^2=38.42$ ,  $p<.001$ ). 남자는 난색계열이 22.1%, 녹색계열이 15.0%, 한색계열이 62.9%로 한색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난색계열이 62.9%, 녹색계열이 6.7%, 한색계열이 30.3%로 난색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색상계열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x^2=103.05$ ,  $p<.001$ ). 남자는 난색계열이 28.4%, 녹색계열이 10.0%, 한색계열이 61.6%로 한색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난색계열이 61.2%, 녹색계열이 7.8%, 한색계열이 31.0%로 난색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에게서 성별에 따른 색채의 편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교과서에 등장한 인물의 의복색채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x^2=159.96$ ,  $p<.001$ ). 자세한 내용을 보면, 남자는 난색계열이 23.5%, 녹색계열이 32.6%, 한색계열이 43.9%로 한색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자는 난색계열이 64.9%, 녹색계열이 12.8%, 한색계열이 22.3%로 난색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x^2=188.70$ ,  $p<.001$ ). 자세한 내용을 보면, 남자는 난색계열이 28.3%, 녹색계열이 31.9%, 한색계열이 39.8%로 한색계열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4학년 여자는 난색계열이 53.3%, 녹색계열이 17.2%, 한색계열이 29.5%로 난색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의복색상에 있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chi^2=267.85$ ,  $p<.001$ ). 그 내용을 보면, 남자는 난색계열이 25.3%, 녹색계열이 32.3%, 한색계열이 42.3%로 한색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난색계열이 60.6%, 녹색계열이 14.4%, 한색계열이 25.0%로 난색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 학년에서 남자는 한색계열과 녹색계열이 여자에게는 난색계열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에게 색의 편중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5에서 국가에 따른 색상계열의 차이를 알아보면, 먼저 남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86.29$ ,  $p<.001$ ). 자세한 내용을 보면 난색계열에서는 연변 교과서가 28.4%, 한국 교과서가 25.3%로 연변 교과서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난색이나 한색보다 중성적인 녹색계열을 보면, 연변 교과서가 10.0%, 한국 교과서가 32.3%로 한국 교과서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색계열의 경우는 연변 교과서가 61.6%, 한국 교과서가 42.3%로 연변 교과서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5. 삽화에 나타난 성별 의복색상(국가간 비교).

	남			여		
	연변 교과서	한국 교과서	계	연변 교과서	한국교과서	전 체
난색계열	134(28.4)	218(25.3)	352(26.4)	275(61.2)	374(60.6)	649(61.1)
녹색계열	47(10.0)	278(32.3)	325(24.4)	35(7.8)	89(14.4)	124(11.7)
한색계열	290(61.6)	364(42.3)	654(49.1)	139(31.0)	154(25.0)	293(26.8)
전체	471(100.0)	860(100.0)	1331(100.0)	449(100.0)	617(100.0)	1063(100.0)
$\chi^2$ 검증	$\chi^2=86.29^{***}$ df=2			$\chi^2=13.24^{***}$ df=2		

\*\*  $p<.01$

여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3.24$ ,  $p<.001$ ). 자세한 내용을 보면, 난색계열에서는 연변 교과서가 61.2%, 한국 교과서가 60.6%로 연변 교과서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녹색계열을 보면, 연변 교과서가 7.8%, 한국 교과서가 14.4%로 한국 교과서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색계열의 경우는 연변 교과서가 31.0%, 한국 교과서가 25.0%로 연변 교과서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연변 교과서에서는 모든 성에서 난색계열과 한색계열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 교과서에 비해서 성에 따른 색채의 편중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4. 남녀직업

연변 교과서의 삽화·사진에 나타난 남자의 직업을 보면 교직이 22.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이 군인, 경찰, 소방관으로 20.5%, 전문직 15.5%로 나타났다.

이 중에 교직에서는 여자가 54.7%로 교사의 직업으로 남자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군인, 경찰, 소방관의 직업에는 남자가 29.2%, 여자가 3.6%로 남자가 더 많이 나타났다. 전문직에는 남자가 17.0%, 여자가 12.7%로 남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그밖에 다른 직업을 보



면, 상인, 자영업, 판매업은 남녀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근로자나 운전기사의 경우는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임·어업의 경우에는 남자가 5.7%로 여자가 3.6%인데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운동선수의 경우도 남자에게만 나타나고 있다.

표6. 삽화에 나타난 성별 직업(국가간 비교)

직업	남		여	
	연변 교과서	한국 교과서	연변 교과서	*한국 교과서
상업	2(1.9)	12(8.6)	1(1.8)	8(11.9)
생산직	3(2.8)	13(9.4)	2(3.6)	2(3.0)
사무직	11(10.4)	1(0.7)	0(0.0)	3(4.5)
운수, 장비 운전사	1(1.9)	4(2.9)	0(0.0)	0(0.0)
서비스업	0(0.0)	1(0.7)	0(0.0)	5(7.5)
전문직	18(17.0)	24(17.3)	7(12.7)	5(7.5)
연예인	0(0.0)	0(0.0)	0(0.0)	1(1.5)
교직	6(5.7)	22(15.8)	30(54.6)	25(37.5)
언론인	0(0.0)	2(1.4)	0(0.0)	5(7.5)
군인, 경찰, 소방관	31(29.2)	11(7.9)	2(3.6)	3(4.5)
1차산업	6(5.7)	11(7.9)	2(3.6)	1(1.5)
운동선수	19(17.9)	4(2.9)	0(0.0)	7(10.4)
종교인	0(0.0)	5(3.6)	0(0.0)	0(0.0)
기타	9(8.5)	29(20.9)	11(20.0)	2(3.0)
합계	106(100.0)	139(100.0)	55(100.0)	67(100.0)

한국 교과서의 삽화와 사진에 나타난 직업분포를 보면, 교직이 22.8%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기타를 제외하고 다음이 전문직 14.1%, 상인, 자영업, 판매업이 9.7%의 순이었다. 이 중에서 남녀의 비율을 살펴보면, 교직에서는 남자가 15.8%, 여자가 37.3%로 여성이 교직으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직에서는 남자가 17.3%, 여자가 7.5%로 남자가 더 전문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상인, 자영업, 판매업에서는 남자가 8.6%, 여자가 11.9%로 여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운전기사에서는 모두 남자만 나타나고 있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군인/경찰/소방관은 남자가 7.9%로 여자 4.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농·임·어업에서도 남자가 7.9%로 여자 1.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운동선수에서는 여자가 10.4%로 남자 2.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연변 교과서와 한국 교과서에 나타난 직업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교직은 여성에게 많이 묘사되고 있었다. 그리고 운수, 장비 운전사의 경우는 남자에게서만 나타나고 있었으며, 전문직은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군인, 경찰관, 소방관, 농·임·어업도 두 나라 모두에서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연변 교과서에서는 남자에게서만 나타났는데 반해, 한국 교과서에서는 여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 IV. 논의 및 제언

20세기 후반 정보화시대가 돌입하면서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각 국가에서는 가치관의 변화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성역할의 변화이다. 중국 연변조선족의 경우 2-3대에 걸쳐 중국에 거주하면서 법적으로는 중국인이지만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계승하는 대표적인 재외 동포이다. 이주의 역사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북한의 문화와 가까운 연변이(김두섭, 1996), 20세기 말부터 한국 경제의 발전에 따라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밀려들어오고 있고, 또한 연변을 중국 및 북한 진출의 거두보로 삼으려는 한국인들의 접촉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문화 접변도 급속히 전개되었다. 따라서 연변 조선족은 중국의 거시체계 내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한국과 북한의 한민족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독특한 지역으로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김인전, 1998; 이귀옥 등, 2003). 현재까지 조선족 사회에 대한 이러한 성역할과 성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하였기에 여기서는 국내의 연구에 비교하고 한국 아동의 자료와 비교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차와 성역할이 급속히 양성평등주의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어 정치, 경제 측면에서 여성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국가시험 등에서 여성들의 합격률이 증가하고 있다. 한 예를 살펴보면, 2003년 보형계리사의 여성 합격자 비율이 지난해 35.8%보다 63%로 크게 높아졌고, 제47회 행정고시 3차 합격자에도 여성이 32.7%로 행정고시 사상 최고의 여성합격률을 기록하였다(이혜성, 1989; 이화여대한국여성연구소 · 숙명여대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93; 뉴시스, 2003; 동아일보, 2003; 매일경제, 2003).

정부에서도 여성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때 직업구분 없이 남녀 모두 30%정도의 채용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미달되면 하한점 안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 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유엔개발계획(UNDP)의 “2002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간개발지수는 1백 73개국 중 27위지만 여성의 정치 경제활동과 정책결정 참여도 등으로 산정하는 여성권한지수(GEM)는 66개국 중 61위이다. 한국의 교육수준을 빼면 기본적인 여권지수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여성개발기금 보고서에도 한국 여성의 의회 의석 점유율과 한국의 여성 유급 노동자 비율이 모두 최하위권이다. GEM은 유엔개발계획이 국회, 고위행정관리직, 전문직 등에 진출한 남녀성비율, 남녀소득차등을 조사해 산출한 지수이다. 국제의회연맹(IPU)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 당시 한국의 여성국회의원은 16명(5.6%)으로 120개국 가운데 겨우 96위였다.

실제 여성 국회의원의 경우 스웨덴은 42.7%나 되고 독일 31%, 중국 21.8%인 반면, 한국은 세계 평균(14%)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5.9%이다. 여성공무원 또한 1990년 전체 공무원의 24.2%에서 2000년 31.5%로 늘어나긴 했지만 절반이상이 교육직으로 일반직은 22.4%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하위직에 치우쳐 6급 이하는 25.0%이지만 5급은 4.3%, 4급은 2.5%, 1-2급은 겨우 1.4%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순적인 성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는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의 성차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최근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교과서에서 성고정관념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음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김재경, 2000; 김선주, 1995; 김옥순, 2001; 소성희, 1998; 이정희, 1997).

삽화를 중심으로 남녀의 비율과 의복형태, 의복색채, 남녀의 직업을 살펴보았다. 먼저 남녀의 비율을 보면, 연변 교과서는 소학교 4학년을 제외하고는 여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교과서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국가의 교과서에 제시된 남녀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남녀의 의복형태를 보면, 여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비율이 한국 교과서가 연변 교과서에서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변 교과서는 여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경우가 50.0%를 넘고 있지 않은데 반해, 한국 교과서는 여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비율이 거의 50.0%를 훨씬 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자가 바지를 입고 있는 비율은 한국 교과서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교과서는 초등학교 4학년을 제외하고는 여자가 바지를 입고 있는 경우가 거의 10%내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변 교과서의 경우는 10%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남자가 바지를 입고 있는 경우는 연변 교과서에서 더 많았으며, 여자가 바지를 입고 있는 경우도 연변 교과서에서 높게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 교과서에는 여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중국의 1자녀 정책이 정착화 되어 있는 조선족보다 한국이 더 성정형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의복을 통해 외모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삽화에 묘사된 의복의 색채분석결과를 보면, 두 국가 모두에서 남자에게는 한색계열과 녹색계열이 더 많이 나타나고 여자에게는 난색계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연변 교과서가 한국 교과서에 비해서 성에 따른 색채의 편중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색의 정형화는 중국이 더 뚜렷하였다. 녹색계열은 두 나라 모두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한국 교과서에서 연변 교과서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김재경(2000)의 연구에서 남자를 표현한 색상은 녹색이나 한색계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를 표현한 색상은 난색계열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김재경(200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초등 미술 교과서에서도 회화나 조소 영역에 페미니즘과 관련된 내용을 좀더 심층적으로 다룬 교과내용의 보강이 필요하다.

성에 따른 직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두 나라 모두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성별 직업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보다 연변 교과서에서 남녀에 따라서 직업의 구분이 뚜렷이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여기서 비록 연변 조선족의 경우 명시적인 성역할은 더욱 전통적이며 차별화 되어 있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두 교과서 모두에서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나타나고 있었다. 즉 남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도 정형화되어 있고, 의복형태나 색채에서 모두 고정관념적 내용이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고 있는 연변족의 교과서는 한국의 교과서와는 그림 속에서 서로 강조하고 있는 성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을 묘사하고 있는 정도나 성역할에 있어서 연변 교과서와 한국 교과서 모두에서 성차가 나고 있었지만 특히 연변 교과서의 경우는 성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중국사회의 경우 1자녀 정책 이후 여성의 지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변 조선족의 경우 한민족의 전통적이고 유교적인 남성위주적 가치가 한국보다도 강조되고 있었다. 이것은 연변 조선족의 경우 성에 대한 인식이 중국과도 차이를 보이며 한국과도 독특한 특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면 연변과 한국, 북한 그리고 중국을 대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국과 조선족 사회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 성비의 차이와 교과서에 묘사된 성역할의 차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제기된다. Guttentag와 Secord(1983)는 성비의 불균형은 대인관계에서 남녀의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남녀의 수적인 차이는 아동기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우선 교과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양성적 평등적인 성역할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강성빈(1998). 중학교 2학년 도덕교과서 내용분석. *경성교육연구*(경성대학교, 교육 연구소), 4, 23-35.
2. 강환국(2001). 한국과 중국조선족 초등(소)학교 사회과의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과 교육*, 34, 69-87.
3. 김두섭(1996). 중국 연변조선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과학논총*(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5, 347-380.
4. 김선주(1995). 제2차 동북아 여성학술대회 『한·중 여성의 과거와 현재』 참관기. *여성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1, 279-281.
5. 김옥순(2001).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성차별 분석.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인전(1998). 북한 인민학교 국어, 수학, 자연 교과서 분석. *초등교육연구*, 12(1), 87-115.
7. 김재경(2000). “초등미술 교과에서의 페미니즘 관련 내용분석 및 수업적용 방안 연구” 인천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뉴시스(2003). (경기)공무원 임용 양성평등 첫 적용, 여성 21명 추가 합격 전체 54.8%(2003, 7, 23).
9. 독고순(1987). 사회주의 인구문제 논쟁과 중공의 인구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동아일보(2002). 여성지위 후진국’ 벗어나야(2002, 3, 7).
11. 매일경제(2002).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48%(2002, 5, 3).
12. 매일경제(2003). ‘행정고시 28.4%, 외무고시 45.7%, 사법고시 23.9%...’(2003, 10, 11).
13. 머니투데이(2003). 보험전문인 476명 합격 발표-금감원(2003, 10, 23).
14. 민수봉(1994). 중국의 소수민족에 관한 연구: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박광식(1990a). 연변조선족의 어제와 오늘(上):중국속의 한인들. *통일로(안보문제 연구원)*, 25, 100-116.
16. 박광식(1990b). 연변조선족의 어제와 오늘(下). *통일로(안보문제 연구원)*, 26, 140-153.
17. 박성희(1994). 교과서 분석에 의한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연구. *통일문제연구*, 22(12), 188-215.
18. 박혜원 · 원영미 · 이귀옥(2003). 중국 조선족과 한국 아동의 읽기 교과서 내용분석 : 체계이론에 따른 가치덕목의 비교. *아동학회지*, 24(4), 55-69.
19. 소성희(1998). 여성교육에 있어서 성차별 연구 : 초등학교 「말하기·듣기」 「읽기」 「도

- 덕」교과서를 중심으로. 성심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우정옥(2000). 외국의 도덕 교육 비교 분석-일본과 한국의 도덕교육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유병호(2000). 중국 조선족의 인구위기에 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재외한인학회), 9, 135-158.
  22. 이귀옥·전효정·박혜원·원영미·김영주·박태수·나은영(2003). 중국 연변 조선족아동의 이중언어환경. 부산: 서립출판사.
  23. 이수행(1999). 중국 조선족에 대한 한중양국의 인식과 정책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이우용(2001). 도덕교과과정. 시도초등학교 교과요원 연수 자료, 교육인적 자원부.
  25. 이정희(1997).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 분석 : 제6차 교육과정 3-4학년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이혜성(1989). 한국인의 여성에 대한 연구. 여성학 영역별 연구(이대, 한국여성연구소 편), 이화여대 출판부.
  27. 이홍남(2002). 우리 나라와 중국 연변 조선족의 초등(소)학교 미술교과서 중 감상영역에 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 이화여대한국여성연구소·숙명여대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1993). 제 1차 동북아 여성학술대회 『한·중 여성의 지위』 발제 요약. 여성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0, 303-319.
  29. 이화여대한국여성연구소·숙명여대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1993). 제 1차 동북아 여성학술대회 『한·중 여성의 지위』 발제 요약. 여성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0, 303-319.
  30. 전영자(2000). 성역할 특성과 남녀평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인문사회과학(인제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7(1), 227-248.
  31. 정확실·조연순·이성은(1992). 중국 조선족과 한국의 초등교과서 비교분석연구-조선어, 사회, 수학, 자연 교과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6, 5-44.
  32. 조선일보(2003). 행정고시도 여풍...합격자 32.7%가 여성(2003, 10, 13).
  33. 한국경제(2002). 양성평등 채용(2002, 10, 30).
  34. 한용수(1999). 중국 조선족 교육의 방향. 교육문제연구, 14, 28-45. 동국대학교 교육연구원.
  35. 한옥주(2001). 한국과 연변 초등학교 5·6학년 음악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 Block, J. H.(1973). Conceptions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 512-526.